LOST 7

잊어버린 사상가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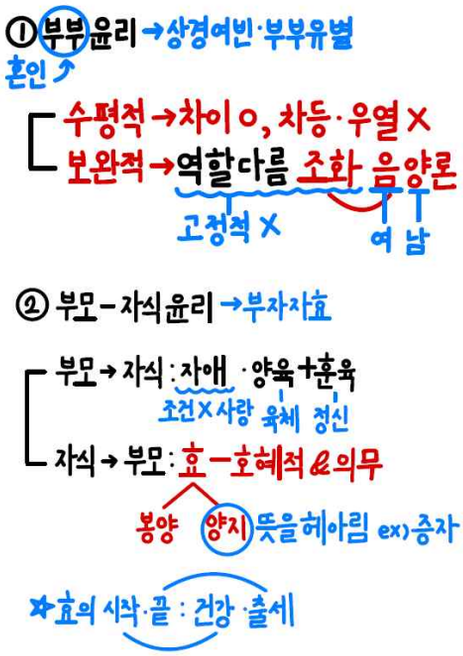
- 니부어가 누구더라?
  존재감이 적던 사상가들을 구조적으로 정리
- 옛기출 중에서 여전히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간단 정리
- 존재감 적은 내용들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깔끔하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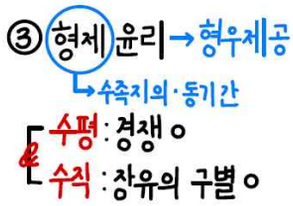
* 이 교재에 적용된 KoPub바탕체(라이트,미디움,볼드)와 KoPub돋움체(라이트)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인회의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megastudy

1.가족 간의 윤리

개념정리





대표 기출 문제

1 **2016학년도 6월 14번**

다음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에게 네가 다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단다. 옛 선현들에 의하면, 군자는 친족을 사랑하며 백성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고, 만물에까지도 사랑이 미치게 해야 한다고 했단다. 이는 마치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이 자라고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지. 이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효(孝)란다. ㉠ 을/를 행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몸을 훼상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증자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된 것을 보고 "비로소 걱정을 면했다!"라고 안도했다고 하더구나. …(후략)…

〈보기〉

ㄱ. 음양(陰陽)의 조화를 통해서 형성된 횡적 관계의 미덕이다.
ㄴ. 사회적 역할에 맞는 도덕적 행동으로 이름을 떨칠 때 완성된다.
ㄷ.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ㄹ. 혈연관계의 친밀함을 배제한 공평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2014학년도 수능 1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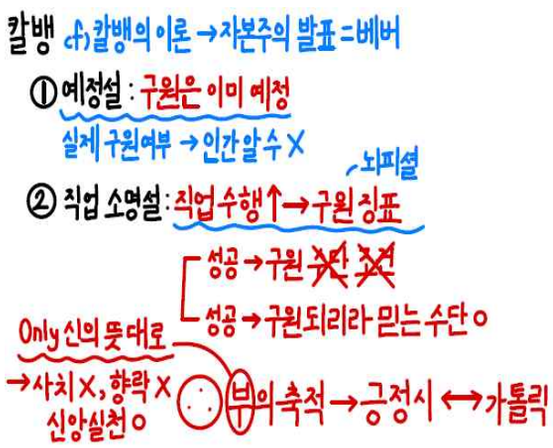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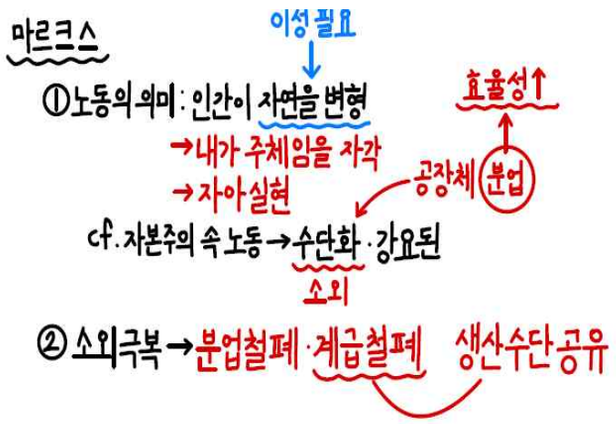
(가)	도(道)에 뜻을 둔 사람은 인(仁)으로 늘 자신을 삼가 허술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인을 해치는 일이 없다.
(나)	○ 사람이 있고 난 뒤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가 있고 난 뒤 부자(父子)가 있으며, 부자가 있고 난 뒤 ㉠ 이/가 있다. ○ ㉠ 은/는 비록 몸이 나뉘어 있지만 같은 기운을 타고 난 존재이므로 행실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서로 항렬을 달리하는 종적(縱的)인 관계이다.
②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③ 다른 성(姓)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관계이다.
④ 장유(長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이다.
⑤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가장 먼저 형성된 관계이다.

2. 칼뱅/마르크스의 직업관

개념정리





대표 기출 문제

1 2019학년도 수능 13번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갑 :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을 해 수행될 뿐이다. 분업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지만, 노동자는 생산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 이외의 다른 모든 정신적 능력들을 잃어버렸다. 이는 예외 없는 현상이다.
> 을 :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청교도는 철저한 노동 의무의 수행을 통해 신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시에 노동 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자본주의의 노동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① 갑은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 회복으로 소외가 극복된다고 본다.
② 갑은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 쇠퇴와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본다.
③ 을은 금욕과 결합된 노동 의무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본다.
④ 을은 청교도가 직업 노동을 종교적 실천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⑤ 갑은 분업 노동, 을은 소명 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2 2025학년도 수능 8번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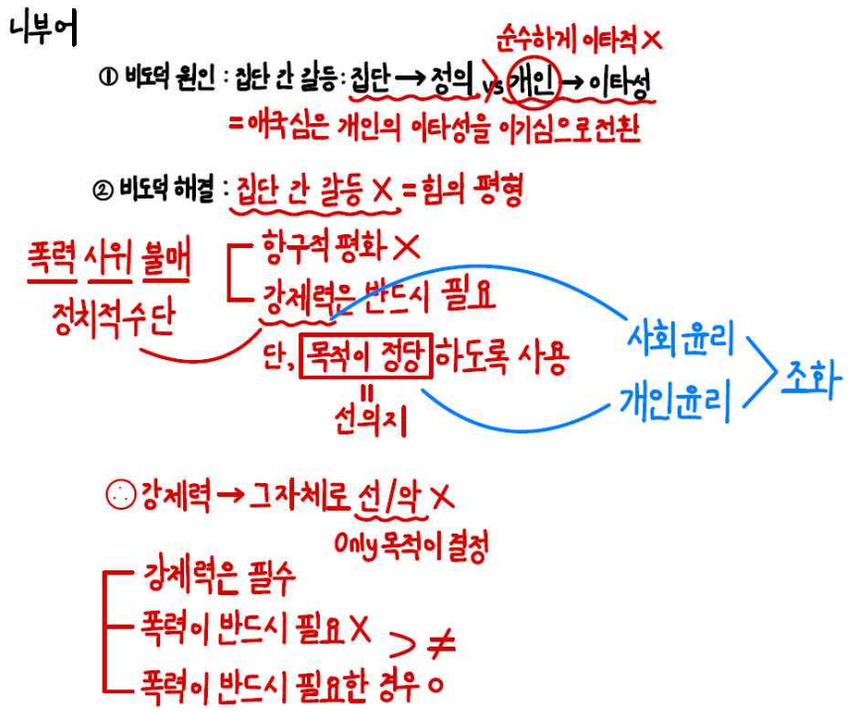
> 갑 : 신은 우리들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활 양식을 소명이라 이름 붙였다.
> 을 : 선왕(先王)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예(禮)를 제정해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게 하여 물건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다.

〈보기〉
ㄱ. 갑 :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이다.
ㄴ. 갑 : 노동으로 얻은 부를 베푸는 선행은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ㄷ. 을 : 백성의 직분은 예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맡겨져야 한다.
ㄹ. 갑과 을 :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의 추구는 권장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니부어의 정의관

개념정리



대표 기출 문제

1 2019학년도 수능 3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보기〉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 2020학년도 9월 6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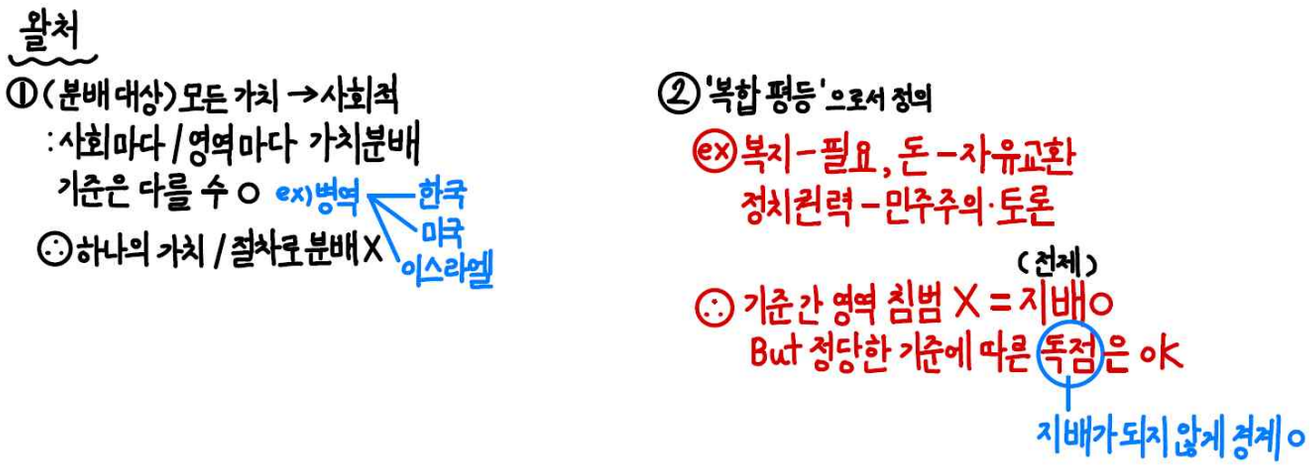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①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③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커진다.
④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⑤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4. 왈처의 분배관

개념정리


왈처
①(분배 대상) 모든 가치 → 사회적
: 사회마다 / 영역마다 가치분배
기준은 다를 수 O ex) 병역 — 한국, 미국, 이스라엘
∴ 하나의 가치 / 절차로 분배 X
② '복합 평등'으로서 정의
ex) 복지 - 필요, 돈 - 자유교환
정치권력 - 민주주의·토론
(전체)
∴ 기준간 영역 침범 X = 지배 O
But 정당한 기준에 따른 독점은 ok
지배가 되지 않게 경계 O

대표 기출 문제

1 윤사 2020학년도 수능 7번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을 :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① 갑: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② 갑: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③ 을: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④ 을: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⑤ 갑, 을: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2 윤사 2019년도 10월 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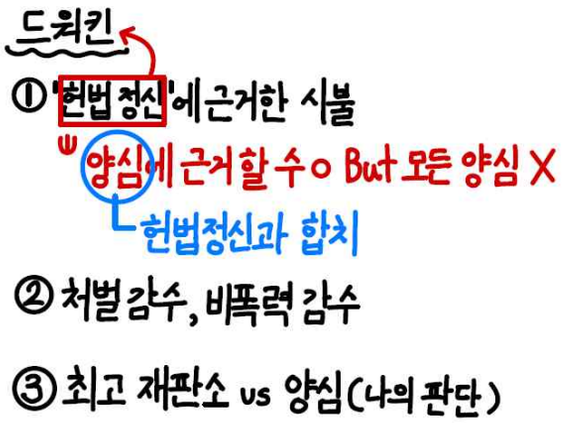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이것들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을 :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 분배 영역에서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만이 적절하다.

① 갑 : 불우한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② 갑 : 정의의 원칙은 권리 배분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근거이다.
③ 을 : 복합 평등을 위해 분배 영역들 간 경계는 사라져야 한다.
④ 을 :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하면 안 된다.
⑤ 갑, 을 :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5. 드워킨의 시민불복종론

개념정리



대표 기출 문제

1 **변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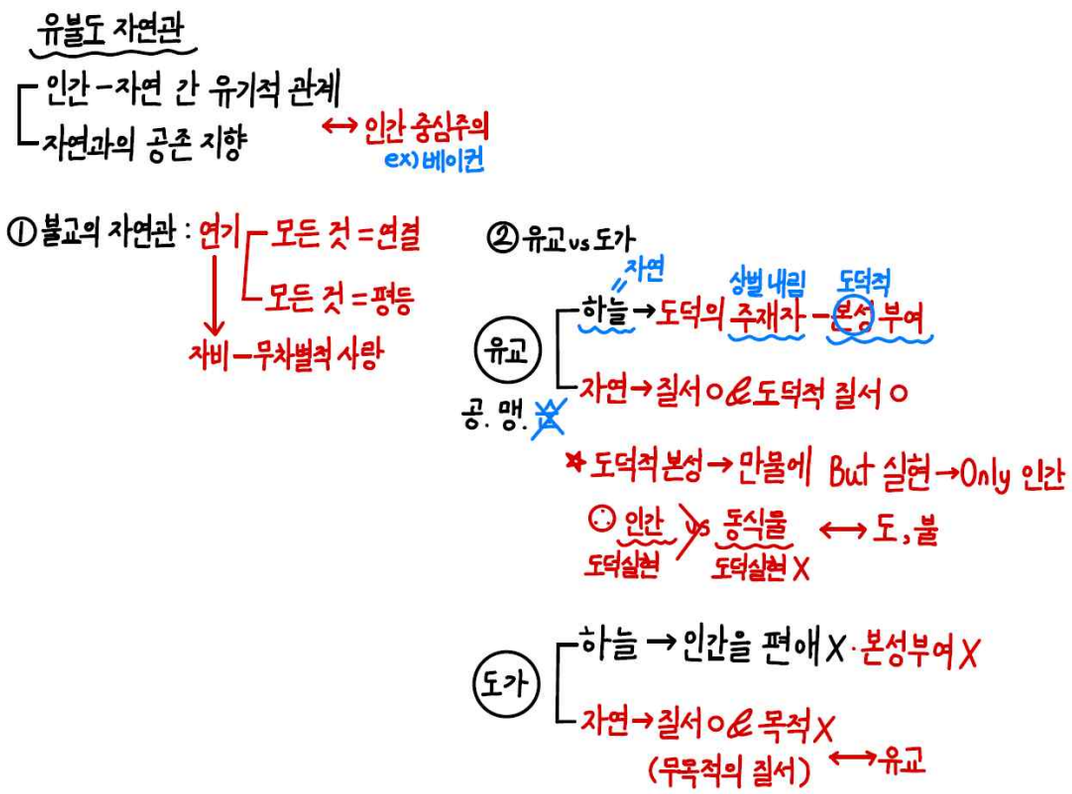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시민 불복종은 헌법에 근거해 정당화되므로 단순한 도덕적 항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의미한 행위이다.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있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불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란 언제나 최고 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복종한다면 그러한 법을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불공정한 법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

① 법의 합헌성 여부가 문제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헌법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다.
③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해지면 안 된다.
④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법에 대한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종할 수 있는 것이다.
⑤ 헌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의 견해가 아닌 헌법 그 자체에 근거해야 한다.

6. 유불도의 자연관

개념정리



대표 기출 문제

1 2015학년도 9월 11번

(가), (나)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하늘과 땅은 사랑을 모르므로[不仁]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聖人)도 사랑을 모르므로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나) 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하며 이 도를 닦아나가는 것을 교화[敎]라고 한다.

① (가)는 인간과 하늘을 상호 독립된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② (나)는 자연을 필연적 질서가 지배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이 목적론적 체계로 구성된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하늘이 인(仁)과 같은 덕의 근원이라고 본다.
⑤ (가), (나)는 연기적(緣起的)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2 2015학년도 수능 20번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 (가)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法)이다. 이것을 공(空)하다고 한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에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공하다.
> (나)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궿)으로 만물을 생겨나게 하니[化生],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일체이다.

> · 학생 답안
> (가), (나)의 관점을 비교하면, (가)는 ㉠ 자연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며, ㉡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나)는 ㉢ 하늘[天]을 인간이 따라야 하는 도덕 원리의 원천으로 보며 ㉣ 하늘 아래 만물이 무위(無爲)의 자연스러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 (가), (나) 모두 자연 만물을 상의(相依)와 화해(和諧)의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드리야르의 소비관

개념정리

보드리야르

① 현대의 소비 → 이미지 ~~사용가치~~

② 자본주의 광고 → 상품을 이미지 전달의 ?=모름 ~ "기호"로써 사용 ex) 그랜져=성공

③ 사람들은 항상 이미지 고려 소비 ○
사물을 조작화 ○

④ 이미지 → 생산질서에 따라 결정

☹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생산질서에 귀속된 소비 ○

⑤ 소비 → 커뮤니케이션 기능 ○

대표 기출 문제

1 2018학년도 9월 14번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기호(記號)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이다. 광고 속에 나오는 상품이 기호라면 행복, 풍요로움, 성공, 권력 등은 그 상품에 부여된 이미지이다. 사람들은 상품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구의 체계를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생산 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하여 사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① 현대인은 소비 활동 과정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는가?
② 현대인은 생산 질서에 좌우되지 않는 소비 활동을 하는가?
③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가?
④ 현대 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은 상품의 이미지에 불과한가?
⑤ 현대 사회에서 광고 매체는 상품을 기호로서 전달하는가?

2 2023학년도 수능 15번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에 따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그 입장으로 현대 사회의 소비를 설명하는 것은 소박하고 무력한 생각입니다. 예컨대 세탁기는 도구로써 쓰이지만 사회적 위세를 표현하는 역할도 합니다. 바로 이 후자의 영역이 현대 사회의 소비 영역입니다.
2
현대인은 사회적 지위 및 명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사물 및 재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호(記號)를 소비한다는 말씀이신 가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대(大) 부르주아는 과시 소비를 거부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검소함, 겸손함으로 차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4

①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경제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비한다.
② 현대인은 타인과의 차이를 드러내려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한다.
③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상위 계층만이 사회적 위세를 표현하고자 한다.
④ 현대인은 사물의 기능을 중시하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한다.
⑤ 현대인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소비한다.

잊어버린
사상가
특강
LOST

LOST 1

잊어버린
사상가
특강

어준규 선생님

고려대 졸
現) 메가스터디 온라인
現) 시대인재, 러셀 등 다수 출강

megastudy